이영희 바다춤

Lee Young Hee Sea D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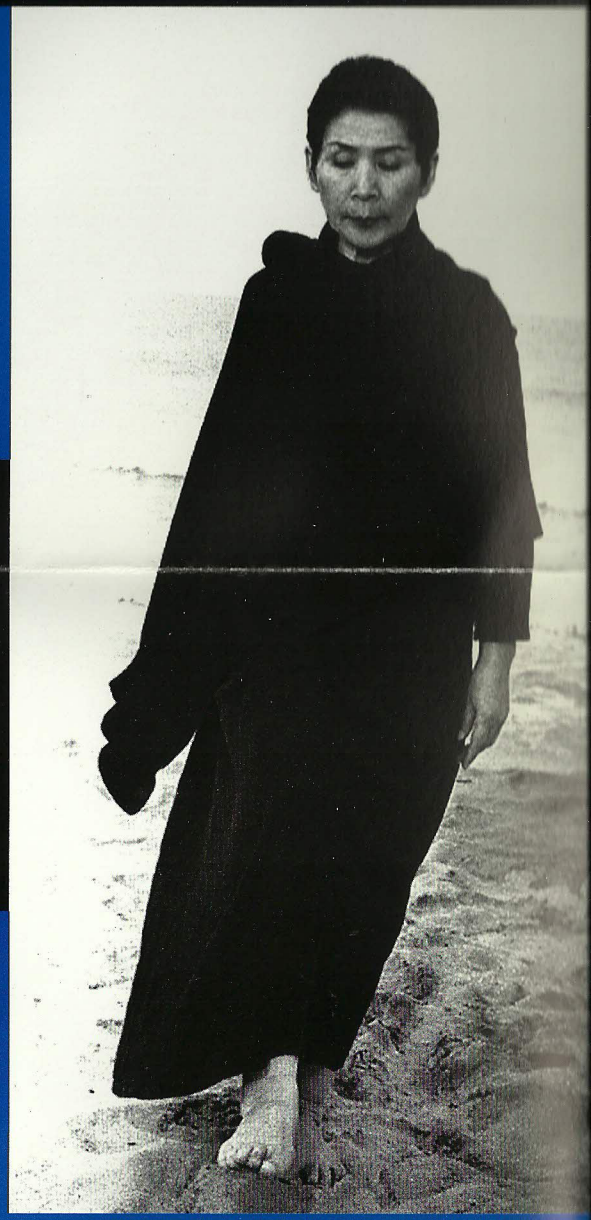
한국춤은 道의 세계·氣의 운행속에 존재한다

2003

7.20(일요일) p.m. 5:00

광안리 해수욕장 야외무대

(남천삼익비치아파트 맞은편)



• 안무 : **이영희**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 지도 : **남선주, 윤지은, 장선희**

와 用의 상보성 · 무한한 생멸을 인식

허튼춤

출연 • 남선주, 윤지은, 오소연, 신영지, 김경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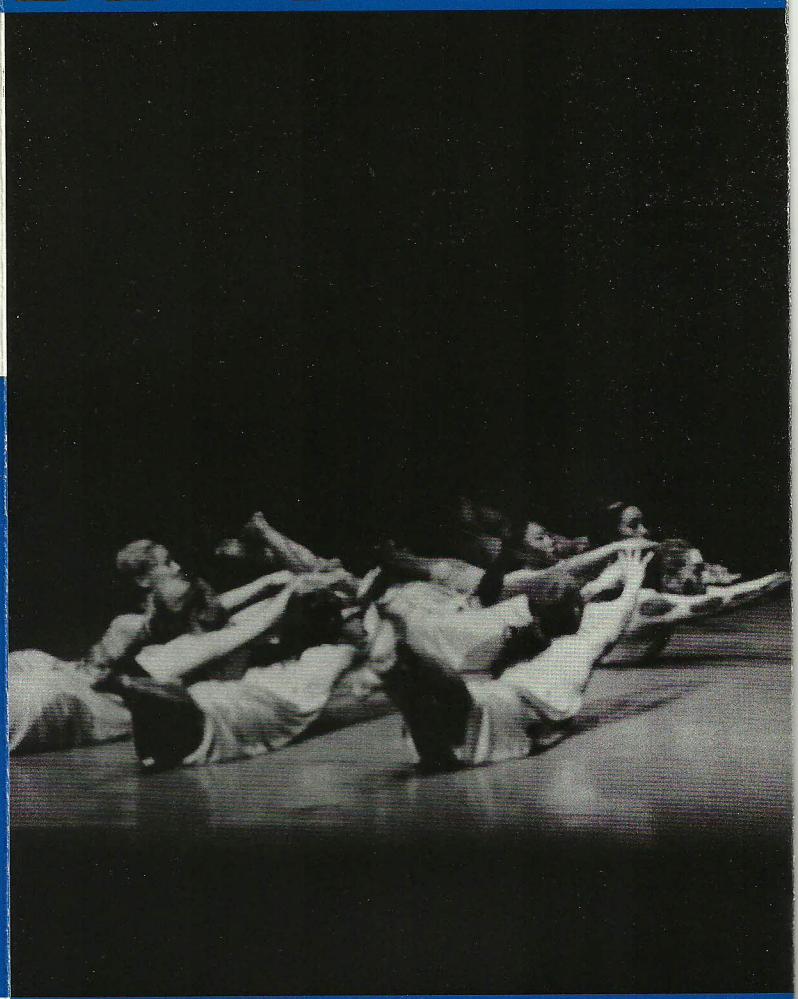
개인의 신명과 개성을 자유자재로 미화시키는 인간적인 춤이다. 굿판을 위시하여 농악판이나 탈판 그리고 소리판, 잔치판, 노동의 현장에서 추어졌다. 흥을 일으켜 춤에 몰입함으로써 황홀경에 도달하게 하고 신명을 얻게 하여 생명체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춤이다.

「생명 · 물 · 물을 살리자

음악 • 난장 토끼이야기 외

출연 • 오소연, 구지혜, 김경민, 김옥희, 김민정, 김지현, 박희선, 신영지, 손지연, 이채언, 장은아, 장현경, 하정화, 허현주, 김송미, 남정희, 박홍점, 석혜림, 안주현, 오은주, 이상민, 이은경, 정애경, 조은미, 최은진, 최정화

현대는 최첨단 정보화, 과학공학에 의한 지구촌화가 초급속으로 진행 발전되고 있다.그런데 갈수록 반대급부로 자연파괴와 환경오염문제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 육지가 바다에 잠기고 있는 것이다. 자연환경을 외면한채 무차별적으로 산을 깍는 도시 건설, 갯벌의 매립등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한 삼보일배의 고행을 외면할 때 삶의 터전을 오염시킨 엄청난 대가를 생명(生命)으로 보상하게 될 것이다. 오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산을 지키고 바다를 살리는 자연의 순환법칙에 순응하며 인간과 자연의 상생(相生)을 위한 춤을 펼친다. 물 · 물은 생명(生命)이다.
이제 한국도 물 부족 국가 서열에 드러섰다. 물을 살리자.



팔괘장 (八卦掌)

출연 • 류현숙, 남선주, 윤지은, 장선희, 오소연, 구지혜, 김경민, 김민정, 김지현, 김옥희, 박희선, 손지연, 신영지, 이채언, 장은아, 장현경, 하정화, 허현주

팔괘장은 중국의 원시태극권(原始太極券)으로서 인체의 축을 이용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돋보이는 동공(動功)이다.
본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사지는 부단히 원을 그리며 팔괘(八卦)를 밟아 나가 우주사방과 인체가 기의 합일을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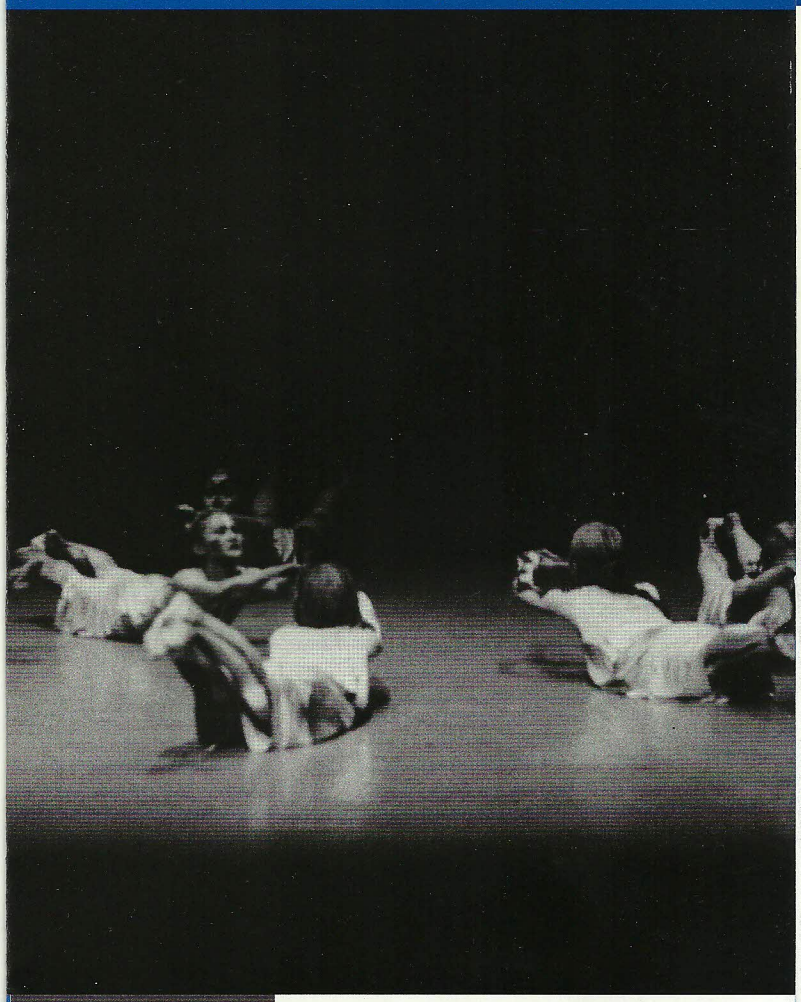
한마당 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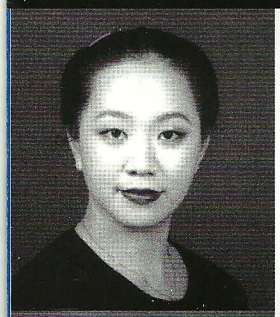
출연 • 장선희 외 전원

연회자와 관객의 공동체 의식을 통한 하나되는 춤마당

• 안무/ **이영희**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 지도/ **남선주, 윤지은, 장선희** • 의상/ **마레** • 무대감독/ **김도연**

하는 과정이다.





남 선 주
새앎춤회 회장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강사

윤 지 은
새앎춤회 기획
전, 동래여자고등학교 교사

오 소 연
사직초등학교 교사

장 선 희
경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춤은 体

이 영 희(李榮熙)

그는 1955년 12세에 무용을 시작하였다.
경희대학교 무용학과와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68년에 문화공보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신인예술상 무용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같은 해 제9회 세계 멕시코 올림픽때는 문화공보부가 파견하는 한국민속무용사절단 단원으로 멕시코, 미국, 일본 순회공연에 참가하였다.
그후 인천시립무용단 상임 안무자를 거쳐 대학교에 재직하면서 춤의 의미성 없는 동작나열과 인위성을 비판하고 무위적 자연춤 개발을 위한 새 감각의 현대 한국춤의 새로운 창작무대를 발표해 왔다.
그는 동양사상에 뿌리를 둔 명상과 기공, 의식의 깨어남을 위한 관찰수행인 Vipassana Meditation 수련을 통해 순수창작작업의 가치관을 재정립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의 작업의도는 소유를 목표로 한 예술행위의 허구성을 부정하며 전통춤 미학과 동양적 원형질을 단단하게 붙잡고 있다. 또한 그가 항상 관심을 갖는 주제 선택은 우리 주변에 있는 온갖 존재의 근원에 대한 깨달음(인간 실존, 삶과 죽음, 물성의 존재, 자연과 우주, 인간성 상실, 환경 오염)에 대한 제 문제들을 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주제전달을 위한 표현양식은 정적인 명상적 행위로 무위적 몸짓의 초자연성에 접근한 자유로운 형식의 새로운 창안을 항상 강조한다. 뿐만아니라 인성, 대사, 극, 퍼포먼스, 영상을 포함한 과격하고 충격적인 총체예술로서의 신표현주의 경향을 띄기도 한다.
최근에 단독무대인 솔로로 97년에는 독일 함부르크 문화부 초청으로 FABRIK극장에서 공연 했고 KAIFU 아트 센터에서는 퍼포먼스를 2001년 우크라이나 ODESSA에서는 의식의 깨어남을 인식하기 위한 구도적 춤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때로는 수십명의 무용수를 등장시키는 우리 마당춤 형식의 극무용 등을 자유롭게 형상화하기 위해 동서양 창조형식의 경계를 넘나듬을 탐구하여 현대 한국춤, 기공춤, 선무용등의 새로운 영역을 독창적으로 꾸준히 다져오고 있다.
현재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교수, 새앎춤회 예술감독으로 있으며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 러시아, 일본, 동남아 등에서 작품을 공연하였다.